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0, 사무엘 상 15-16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상 15-16장 10회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되자 주님께서 새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 왕조를 잃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15장에서 그는 왕좌를 잃게 될 것이며, 주님은 그가 결국 왕의 지위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보내신 자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사울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NIV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넷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동사 형태는 실제로 완료형이며, 이는 종종 완료된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 내가 벌할 일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방문하셨거나 진행된 일을 관찰하셨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당나귀를 아끼지 말고 죽여라. 꽤 심한 것 같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잠시 멈추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선, 이런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말렉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행진의 후방에서 너희 낙오자를 다 멸절하였음을 기억하라 지치고 피곤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이것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너를 둘러싸는 모든 대적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고 네게 기업을 주시거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 사람의 기억을 지워 버려야 할지니라 잊지 마요.

NIV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 버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한 백성으로서 멸망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사울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 여자, 어린이, 유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미지.

감정적인 수준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기초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 아말렉 사람들은 그와 그의 백성에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십니다. 우리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남자, 여자, 어린이, 아기를 파괴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는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자로서 자신이 준 생명을 빼앗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잃도록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아이들을 주었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자신이 주신 좋은 선물을 거두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가나안인의 다산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기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권리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창조자이자 생명을 주는 자이며,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생명을 빼앗을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매우 단체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에서 그는 종종 집단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원죄에 대한 우리의 교리는 사실상 단체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담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글쎄, 나는 정원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과일을 먹지 않았다. 나는 아담과는 다른 범주에 속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으며, 좋은 싫든 그의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때때로 기업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팬이라면 이 예를 사용하겠습니다. NBA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Chicago Bulls가 또 다른 NBA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들은 스텐 커미셔너로부터 우승 반지를 받고 줄을 서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 유니폼, 그리고 갑자기 찰스 바클리(Charles Barkley)와 패트릭 유잉(Patrick Ewing),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Bulls가 모두 우승했기 때문에 챔피언십 링에서 우승하지 못한 훌륭한 명예의 전당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줄을 서서 스텐 국장에게 다가가 반지를 찾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텐 국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당신은 검은색과 빨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인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팀에 관한 것이고 그들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ill Wennington과 Judd Buschler, 아시다시피 Ewing과 Barkley의 능력에 가깝지도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들이 반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스텐 국장은 이것이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았지만 이것은 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면 직장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망한 걸 발견하고 사무실을 열라고 요구하고 작년에 직원으로서 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장을 잃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당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 기업에 관한 것이므로 기업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도덕, 옳고 그름, 판단과 처벌에 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집단을 보신다.

이스라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시고 빼앗는

자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말렉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더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낳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라지길 원했고, 그게 가혹하게 들리는 걸 압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또 다른 문제적 측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세 시대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후대 아말렉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를 처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Bibliotheca Sacra Journal*에 이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를 처벌하실 때 이를 위해 플러그를 꽂을 것입니다. 우리가 BibSac 이라고 부르는 최신호에서 이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가 형벌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 법정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빼앗는 분으로서 때때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세 시대의 아말렉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당신을 임무에 보냈으니 가서 그 악한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는 부패하고,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패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 성으로 가서 매복 공격을 가했지만 그 전에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겐족속은 누구입니까? 6절. 그들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합니다. 가라사대 아말렉 족속을 떠나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공격을 개시했을 때 누가 겐 사람이고 누가 아말렉 사람인지 알아낼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도시에서 나가야 하며 우리는 이 공격 중에 여러분 중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구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8절에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의 백성을 모두 칼로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는 아각 왕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군대는 아각과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기꺼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파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며 혼란이 아닙니다. 그러나 멸시받고 약한 것은 모두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말렉의 가축이 병든 가축이라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관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글썄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신성한 전지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상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일종의 후회를 느낀다.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여기 물 좀 길어야 겠어요. 실례합니다.

거기가 좀 나아졌네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름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는 나오지 않으며, 그는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사울에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가 주님께 화를 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 상황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과 탄식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였고, 사무엘은 진노하게 하였으며, 저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듣자하니 사울이 갈멜로 갔다는 소식이 재미있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방향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자신에 대해 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전 장에서 보았던 주저하는 사울에게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사울에 관한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룬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자 사울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무엘의 반응이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다면 내가 왜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사울은 형식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의례. 종교 의식. 아시다시피 저는 Samuel이 여기서 잠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멸절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주님께 엄청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주님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얻었습니다.

아니, 아니. 주님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 보세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전에는 너희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지라도 그가 택함을 받은 때를 기억하라 사무엘이 처음에 택함을 받았을 때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작은 늙은 벤저민, 우리 작은 가족의 작은 늙은 나.

나는 누구입니까? 네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에 대한 주님의 권위를 상기시키는 또 다른 일입니다. 이번 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시고 너를 보내사 명을 내리셨느니라 당신이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과 전쟁을 벌이십시오. 이에 대해 불분명한 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파괴.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탈물을 덤벼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글썄, 사울은 아직 사무엘의 의견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사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왕 아각을 다시 데려왔다. 군인들은 양과 소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는 군인들을 여기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취하였느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는 지금 군인들을 거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자신을 가려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주장에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사야 1장, 고전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느니라 여기까지, 나는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희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의 죄에 다른 죄를 더할 뿐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위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구약에는 희생을 위한 장소가 있지만 희생은 주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순종은. 이것은 고전적인 텍스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반역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행한 일이 반역은 점술의 죄와 같고, 오만은 우상 숭배의 악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한 일은 점술과 우상숭배만큼이나 나쁜 짓이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거기 서신을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거부하면 그분도 당신을 거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왕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겼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이 가축 중 일부를 자기들끼리만 갖고 싶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압력을 가했을 때 그가 모든 금을 불에 던졌는데, 보라,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청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여전히 예배에 집착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26절에서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혹시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사무엘은 떠나려고 돌아섰고,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로 향했고, 이 선지자들은 언제나 교훈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 하나인데, 옷이 찢겨진 사무엘은 요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예시로 사용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셨느니라 당신이 내 옷을 찢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이웃,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마도 앞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과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아주 빨리 배울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런 종류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이는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며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마땅히 뜻을 바꾸시리라.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뜻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요나는 4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놓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이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최선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확실하시지만 자신의 의도 상태를 바꾸신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에 비추어 그것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누그러지십니까, 아니면 누그러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구절을 받아들여 다른 텍스트보다 우선시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 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이 회개할 때 뜻을 굽혀 그들에게 경고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예언은 종종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고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거나 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변함없이 자비로우시며,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다가온다고 선언하시고, 그러한 진술을 이런 진술로 표시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을 기꺼이 바꾸고 판단을 철회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경우, 아니, 이 상황에서 그것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인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령이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시점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다시 인정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예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 시점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이 심판 연설을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의 호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곡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가서 아곡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그들은 아곡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죽음의 괴로움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정의의 문제로 봅니다. 당신의 칼이 여자들을 아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너 악한 아말렉 사람아,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네 어머니는 여자 중에 아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곡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좌를 상실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엘리에게서 본 것과 같은 교훈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종교적 형식주의보다 순종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시며, 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남편에게 불성실한 한 여성을 만나러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너희는 나에게 설교를 시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목상을 합니다. 미안해요. 목상,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당신이 노골적으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범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아닌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순종을 우선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명령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기꺼이 마음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늦은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별한 구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떠났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사울의 죄는 사무엘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고, 여호와께도 후회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인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염두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장에서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실 때 외모가 아닌 내면의 성품을 우선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됨을 버렸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충분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적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가십시오. 그 의미는 기름, 즉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름부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베들레헴의 제시에게 보낸다. 나는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여행이 그를 사울의 마을을 통과하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주석, 즉 사무엘상 본문 주석에서 말했듯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10마일의 여행은 선지자가 바로 기브아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가 지나가면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라 하라 그러므로 이것은 사기입니다.

제시를 제사에 초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단지 그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속임수를 승인하시는가? 그리고 사실 그는 그렇습니다. Matthew Newkirk가 쓴 Just Deceivers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뉴커크는 하나님에 관한 속임수라는 주제를 연구합니다. 그는 각 구절의 맥락을 살펴보고 속임수가 부정적이라는 점과 어떤 경우에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의 한 형태로 속임수를 사용하시며, 때로는 개인이 부도덕 때문에 진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인을 자행하는 자이며 진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속이고 그에게서 진리를 빼앗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전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읽고 싶고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연구된 것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나는 설득력 있게 매튜 뉴커크의 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을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튜 뉴커크, 단지 사기꾼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만나 떨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뭔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온다. 그는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발표하러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히 오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평안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별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러 가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고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르되 과연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호와 앞에 섰느니라. 그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는 키도 크고 사울처럼 인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눈을 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왕을 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통해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선택할 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러자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는 그의 아들 일곱 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아직 막내예요, 라고 제시가 대답했어요.

그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십시오.” 그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모두 만나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건강이 빛나고 용모가 곱고 용모가 잘 생겼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그는 붉고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야기꾼, 서술자, 저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나는 눈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고 하고, 다윗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니 아니. 이야기꾼님, 듣고 계셨나요? 네, 듣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입니다.

그는 듣지 못한 듯 데이빗의 눈에 집중한다. 글썄, 그는 분명히 들었어. 그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 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꽤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못생긴 왕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겉모습, 다윗의 인상적인 용모,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엔 그들이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화자가 하는 일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Walter Brueggemann은 사무엘에 관한 글에서 내가 본 것 중 이 점을 가장 잘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는 언젠가 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서도 외모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으로서 그는 자존심과 그에 따른 권력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밋세바를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여기서 묘사하는 방식과 거의 일치하는 아름다운 외모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화자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에서 보시는 것에 기초하여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데이비드가 매력적이며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그에게 끌리게 만들 수 있는 인간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중 일부에 집중한다면, 그 자신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강점이 약점이 되도록 허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화자가 소개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었습니다. 그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공적인 왕이 되려면 주님의 영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영이 있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경우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시고 그의 영 대신에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사 그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이 악령이 일종의 악마적 존재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때로는 라아(ra'ah)로 때로는 재난과 심판, 재난 등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영이 사울의 경험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심판하러 보내심을 받은 영이요, 심판하러 보내심을 받은 영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영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재앙과 재난을 가져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악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행원 중 한 사람이 말하길,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당신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음악을 연주하여 당신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 그거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영으로 괴로워할 때, 나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러자 하인 중 하나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그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음악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 기자 다윗이 쓴 시편에는 그가 쓴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고 전사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조금 이르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다음 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가 거의 목자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처럼 전사로서 전투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증식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17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윗이 전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단한 용기와 기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하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 사람과 대결을 해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자나 곰을 잡을 수 있다면 돈을 걸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평범한 블레셋 군인을 상대로, 또는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블레셋 군인을 상대로는 관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예요.

보세요, 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 아들 다윗이 와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갑옷을 입은 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7장에서 다윗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간제 수금 연주자이자 무기 운반자로 사울을 위해 일하지만, 이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순을 본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1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David가 가끔 집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좌를 잃었습니다(15장).

하나님이 그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시고 이 악한 영 곧 사울을 심판할 영을 들여오셨느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윗

위에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행하시는 일은 다윗을 사울 왕궁 근처로 데려가서 다윗의 경력을 시작하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울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다음 장은 다음 단원의 17장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서, 다윗, 골리앗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긴 장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기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인 만큼 작은 약자가 큰 힘의 거인을 물리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상 15-16장 10회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되자 주님께서 새 왕을 선택하셨습니다.